

韓 무역수지 또 적자 기록 '경고등'

누적 적자 속도 2008년 위기 때보다 빨라 우크라이나 사태발 국제 유가 급등 등 원인

한국의 지난달 수출액이 월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지만, 또 다시 무역수지 적자에 빠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같은 추세라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적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5월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61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3% 늘었다.

19개월 연속 증가세이자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이다. 기준 최고 실적은 지난해 5월 507억 달러였다.

다만 지난달 수입액은 1년 전보다 32% 늘어난 632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넘어 서면 무역수지도 17억1000만 달러 적자로, 두 달째 적자 기록을 이어갔다.

지금과 같은 적자 추세가 이어진다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누적 적자 속도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행 국제수지동향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 당시 1~5월 무역수지는 누적 63억4000만 달러 적자였지만, 올해(1~5월) 벌써 78억5000만 달러로 이를 넘어섰다. 100억 달러도 조만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기준으로도 14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이 2000년 이후 연간 무역적자를 낸 것 역시 2008년(133억 달러)이 마지막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

난달 30일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자료에서 한국의 무역수지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져 올해 15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올해 연속되는 무역수지 적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저탄소 에너지 수요가 늘어 천연가스 수입이 늘어나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한국과 같이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고유가 기조 속에서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된다. 유가가 뛰면 원자재 가격이 높아져 수입 단가도 오르기 때문이다.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5월 가격은 108.2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3%가 올랐다. 같은 기간 원유 수입액도 88억78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5%가 뛰어올랐다.

원유를 제외한 주요 에너지 자원도 추세는 비슷하다. 석유 제품은 22억 79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6%

가 올랐으며, 가스는 30억9900만 달러로 74.1%, 석탄은 27억7600만 달러로 233.1%가 증가했다.

여기에 최근 급등하고 있는 국제 곡물 가격도 한몫 거둔 것으로 보인다. 5월 1일~25일 농림수산물 수입액은 37억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가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 수입액이 수입 증가세를 주도하며 무역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 무역적자는 우리와 같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이탈리아·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회복 전망은 어두워 보인다. 무역수지 부진, 대외 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한국은행(2.7%), 한국개발연구원(2.8%), 산업연구원(2.6%), 국제통화기금(IMF·2.5%) 등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전망했다.

수출 경기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뉴시스

캐스퍼·캐스퍼밴 구매 소상공인에 할인

중기중앙회-현대차, 업무협약 체결...저금리 할부제공

현대자동차(현대차)가 캐스퍼와 캐스퍼밴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현대차는 지난달 31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동반성장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노란우산 가업 소기업·소상공인이 캐스퍼와 캐스퍼밴을 구매하면 ▲맞춤형 저금리 할부 제공 ▲특별 카드 프로모션(2만원 캐시백) ▲캐스퍼밴 구매시 계약금 일부 지원(10

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춤형 금융 프로그램으로 초보 사업자는 거치형 할부(6개월 동안 월 납입금 제로), 향후 목돈이 들어 올 사업자는 유예형 할부(월 납입금 9만원대), 베테랑 사업자는 표준형 할부(연 1%대 저금리)가 있어 구매자 본인의 금융 조달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카셰어링 플랫폼(쏘카·그린카)을 이용해 캐스퍼를 2시간 시승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노란우산 가업자도 캐스퍼를 무료 시승해 볼 수 있다.

대장주 아파트값, 석 달째 상승폭 커져

집값 양극화 역대 최대...아파트 5분위 배율 10.13

부동산 시장에서의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국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장주 아파트 시세는 석 달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30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뜨거운 한 채' 선호와 양극화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상위 20%(5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4892만원, 하위 20%(1분위)는 1억 232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20%의 가격을 하위 20% 가격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10.13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의미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지난해 9월 8.7에서 10월 8.6으로 다소 떨어졌지만 11월 9.3으로 다시 상승한 뒤 이달까지 7개월 연속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는 대출규제 강화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고가 아파트의 경우 이미 대출이 어려워졌던 상황 이라 비교적 영향을 덜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 아파트와 저가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 상승폭도 크게 엇갈린다. 최근 1년간(2021년 6월~2022년 5월) 전국 1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 1978만원에서 1억 2320만원으로 2.85% 상승에 그친 반면 5분위 아파트값은 10억5699만원에서 12억 4892만원으로 18.15% 상승했다.

'뜨거운 한 채' 선호에 더해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각 지역의 집값을 주도하는 이른바 '대장주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도 석 달째 커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5월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전월대비 0.61% 오른 101.4를 기록했다. KB선도아파트 지수는 대출규제 강화와 금리인상이 본격화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승폭이 5개월 연속 축소됐다.

그런데 올해 2월 0.09% 변동률에서 3월 0.26%로 오름폭을 키우더니 4월 0.39%, 5월 0.61%로 세 달 연속 상승폭이 확대 됐다.

각 지역 '대장아파트'의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 지난 5월 1일 기준 최고가보다 8억 3000만원 오른 38억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뉴시스

한전KPS '고교 원자력 정비사 육성'

원자력마이스터고 등 6개교에 VR 교육콘텐츠 무상 지원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화사인 한전KPS가 원자력 생태계 강화의 첩경이 될 차세대 기술인력 육성을 지원한다.

한전KPS는 31일 경북 울진군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발전소 밸브정비 실습교육용 가상현실(VR) 콘텐츠 무상제공 전달식을 했다.

밸브정비 기술은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소 정비의 핵심 기술 중 하나다. 하지만 학교 실습현장에선 학생 수만큼 실습 장비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전KPS는 원전즈 제공에 그치지 않고 교육기법 전수 등 다양한 인력양성 지원책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발전소 정비 교육을 위한 VR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마이스터고 등 학교 실습현장의 인프라 확충과 자체 교육기부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실습현장에 무상 제공하게 됐다. /주기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가뭄대비 용수확보 총력

한국농어촌공사가 가뭄에 대비해 용수확보 총력전을 펼친다. 농어촌공사는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3%를 보이면서 기상 가뭄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별 용수확보와 가뭄대비를 점검하는 합동회의를 3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31일 기준, 공사 관리 저수지의 저수율은 59.3%로 예년에 비해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내기철 용수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에 접어든 전남 지역 저수율은 57.6%로 평년(63.75%)대비 90.4%를 기록했다. 하지만 앞으로 무강우 현상이 지속되면 용수로 말단부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가뭄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전국 93개 지사가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영농·급수현황, 용수확보 대책,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저수지 풀채우기를 실시해 용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수로에 간이 양수시설을 설치해 하천에서 용수로로 직접 물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각 펌프별 물고 관리와 농경지 퇴수 재이용 등 농가에서도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포스코, 광양 자동차소재연구소 4연구동 준공...근무환경 개선

포스코가 광양 자동차소재연구소 제 4연구동을 준공하고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포스코 자동차소재연구소는 자동차강관의 생산 및 가공 기술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바탕으로 광양제철소가 세계 최대의 자동차강관 생산공장으로 발돋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포스코 기술연구원은 작년 11월 착공 이후 약 6개월에 걸쳐 새로운 연구동의 건설을 완료하고, 현관식을 통해 100년 기업 포스코그룹의 지속성장을 기원했다. 준공한 제 4연구동은 협소한 연구 공간을 넓혀 연구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실용장비를 재배치해 연구 효율성을 대폭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6월 한달간 세탁기·건조기 특별 프로모션 진행.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용량인 25kg '비스크 크 그랑데 A' 세탁기 출시를 기념해 6월 한달간 세탁기·건조기 제품을 대상으로 '그랑데'와 사는 세상'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삼성 디지털프라자·하이마트·전자랜드 등 주요 대형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된다. /뉴시스

광주경자청, 입주기업 효율적 관리...관리기관과 협업체제

입주 심사 참여 등 기업 유치 협력방안 추진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경제자유구역 내 산단 관리기관과 협업 체제를 구축하고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과 시행령,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산단과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관리는 공단과 진흥재단에 위탁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산

단은 관리기관이 ▲인공지능(AI) 융복합지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미래형자동차지구는 한국산단공단 ▲스마트에너지 지구 I·II는 광주도시공사(2022년말 광주경자청으로 이관 예정)로 분리되어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의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광주경자청은 올해 두 차례 실무 회의를 통해 입주기업 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광주경자청의 역할 확대를 제안했으며, 한국산단공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필

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앞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025년 인공지능(AI)융복합지구가 준공되면 기업체의 입주심사(계약시 입주심사위원회에 광주경자청이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토록 하고 최종 공장등록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한국산단공단은 현재 법률상입주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지난 3월부터 월별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입주심사에 앞서 사전자료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광주경자청의 역할을 지원한다.

/권형안 기자

기아, 전기차 개인택시 고객 위한 'EV멤버스 택시' 출시

국내 최초...신차 구매부터 충전, 유지관리 등 지원

기아가 전기차 개인택시 고객을 위한 맞춤형 멤버십 '기아 EV멤버스 택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기아 EV멤버스 택시'는 국내 최초의 개인택시 고객 전용 멤버십이다. 기아 전기차 구매고객 중 개인택시를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차별화된 혜택과 편리한 택시 라이프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8월 출시한 '기아 EV멤버스'의 충전 로밍, 카 케어, 라이프케어, 차량 정비 서비스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카카오톡 블루 바우처, 국내 최초 기사식당 쿠폰, 개인택시 굿즈 제

공 등 전기차 개인택시 고객을 위한 맞춤형 혜택을 강화했다.

기아는 '기아 EV멤버스 택시'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합 모바일 고객 앱 'Mukia'를 통해 충전사업자별 별도 회원가입 없이 국내 충전소를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로밍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월정액 멤버십 구독 시 매월 최대 1400kWh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는 구독형 충전 요금제 '기아 그린패스'의 사용 요금을 신용카드 및 기아멤버스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한빛원전 '25년 연속' 수산자원 조성에 60억 투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가 25년 연속 원전 주변지역 해역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지난달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30일부터 이를간 원전 인근 해역에서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1997년부터 매년 시행 중인 '수산자원 조성 사업'은 원전 주변 해양생태 환경을 고려해 적합한 수산자원을 선택해 주변 해역에 방류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지역특성에 맞는 백합, 참조기 등 60억원 상당의 어패류를 방류했다.

지난 25년 간 방류한 수산자원을 살펴보면 어류는 약 1만3386만 마리, 패류는 1130톤에 달한다. 올해는 방류 행사 외에도 6월 중에 참조기 8만4000마리, 감성돔 14만5000마리, 꽃게 460만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원전 주변 해역의 어족자원 회복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영사중민 기자